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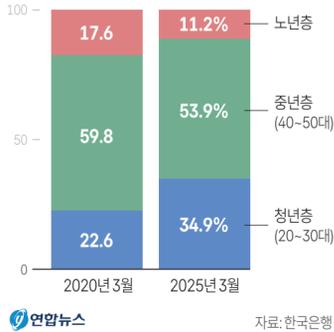
부채 늪에 빠진 청년층... 고위험가구 35% '역대급'

2020년비 12.3%p ↑ ...부채 규모 2.4배 ↑
소득·자산 적어 타 연령보다 많이 빚져
3월 기준 전체 고위험가구 45만9천가구

주택 구입과 주식 투자를 위해 빚을 지는 청년들이 늘면서 부채 상환 능력이 부족한 고위험 가구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한국은행이 26일 공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고위험가구 45만9천가구 중 20~30대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34.9%로 집계됐다. 2020년(22.6%)보다 12.3%포인트(p) 확대됐다. 중년층(40~50대)과 노년층이 각 53.9%, 11.2%로 2020년(50.8%·17.6%)보다 축소된 것과 대조적이다. 고위험가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고,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위험가구 내 연령대별 비중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고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이 100%를 초과하는 가구 수 기준



청년 고위험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 규모도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2017년 3월 부채 규모를 100으로 봤을 때, 청년 고위험가구가 진 금융부채는 2020년 3월 134에서 지난해 3월 318로 약 2.4배로 뛰었다.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적은 청년층 가구가 주택 구입, 주식 투자 등을 위해 부채 차입에 나서면서 다른 연령층보다 청년층 고위험가구의 증가 폭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4년 3월 이후 지방 부동산 시장 부진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고위험가구 수와 금융부채도 늘었다.

지난해 3월 기준 고위험가구 수는 45만9천가구로, 1년 전인 2024년 3월(38만6천가구) 약 7만3천가구(19%) 증가했다.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고위험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3.2%에서 4.0%로 뛰었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96조1천억원으로, 전체 금융 부채의 6.3%를 차지했다. 이 역시 1년 전(72조2천억원·4.9%)보다 규모와 비중 모두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한은은 "2024년 3월 이후 지방 부동산 시장 부진이 이어지고,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채무상환 부담이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은은 2025년 3월 이후 수도권 집값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지난해 말에는 고위험가구 비중이 가구 수 기준 3.6%, 금융부채 규모 기준 5.9%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위험가구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지방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지연되고 금융자산 가격 조정 등이 동반될 경우 부채 증가가 컸던 가구를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크게 확대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광주농협이 최근 NH농협손해보험 광주총국으로부터 '2026년 위더스(With-Us)' 상을 수여받았다. 사진은 시상식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단체 사진 모습. <북광주농협 제공>

북광주농협, 2026 NH농협손해보험 위더스상 수상

농업인 실익증대 기여 공로

북광주농협은 26일 "전날 북광주농협 대회의실에서 NH농협손해보험 광주총국으로부터 '2026년 위더스(With-Us)'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위더스(With-Us) 상은 손해보험 사업을 통해 농업인 실익증대에 기여한 공이 크고, 지역사회 선도에 기여한 농축협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으로, 농협과 손해보험 간의 상생

협력과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상이다.

이날 시상식에는 서운종 NH농협손해보험 부사장, 이철호 농협 광주지역본부장, 문익주 NH농협손해보험 광주총국장 등이 참석해 구상봉 북광주농협 조합장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서운종 부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선 북광주농협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도 농협손해보험과 더욱 협력해 농업인,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추진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구상봉 북광주농협 조합장은 "이번 성과는 전 임직원이 조합원의 재산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NH농협손해보험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내실 있는 사업성장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농가 경영활동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실익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중기부, 명문장수기업 내달 24일까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세대를 이어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을 내달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정부가 장기간 건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확인해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업력이 45년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며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중기부는 기업 평가와 평판 검증 등을 거쳐

오는 9월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명문장수기업 선정은 국가균형성장을 고려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조 광역별 지역 위주의 중소·중견기업이 전체 명문장수기업 중 60%까지 선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명문장수기업 신청은 기업이 직접하거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해당 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NH농협은행 전남본부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가입 행사

만 60세 이상 100만명 무료 가입 지원

NH농협은행 전남본부는 26일 "담양군에서 진행된 전남농협 해피버스터데이 발대식에서 관내 고령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가입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과 NH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공동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기조에 발맞춰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사기 피해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보상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했다.

만 60세 이상 전 국민 100만명을 대상으로 선



작은 무료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 기간은 올해 11월까지다.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가입은 N

H농협은행 영업점과 NH윌뱅크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장 내용은 보이스피싱 및 메시지피싱으로 인한 직접 송금 피해액의 70%를 보상하며 보장 한도는 최대 1천만원이다.

장재영 NH농협은행 전남본부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지능화됨에 따라 시니어 고객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안심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신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할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